

# 雙楹塚을 통해서 보는 建築要素 몇 날 小考

趙仁淑

건축사사무소 다리建築

Report/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Features through  
the Mural-Decorated Tumulus 'Ssangyong-Chong'

by Cho, In-Souk

## ■ 글의 차례 ■

1. 背景
2. 雙楹塚(Tomb of Twin Pillars)
3. 墓室에 나타나는 建築樣式에  
관련된 要素  
가. 八角石柱  
나. 기둥·拱包·人字栱圖(壁畫)  
다. 建物圖(壁畫)  
라. 抹角藻井(Lantern Ceiling)
4. 맺는말

### 1. 背景

우리나라에서의 무덤의 변천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新石器時代에는 葬制, 青銅器時代 및 初期鐵器時代에는 墓制, 三國時代에는 古墳, 고려이후에 와서는 墓나 陵으로 변모해 왔다. 즉 古墳이란 '삼국시대의 무덤'을 가리키는 것으로 굳이 정의를 한다면 어떤 한정된 시대에, 어떤 형식을 갖춘 지배층의 墳墓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정된 시대라 함은 부족사회적인 요소를 띠고 있는 시기부터 支配, 피지배가 구분된 시기까지이며 火葬의 성행에 따라 고분의 築造가 쇠퇴된 때까지를 의미한다. 또한 어떤 형식을 갖춘 지배층의 무덤이란 고분의 입지조건이나 墳丘의 外形이나 規模, 內·外部의 구조, 부장품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된 시설들이 有機的으로 결합되어 꾸며진, 형식을 갖춘 墳墓를 말한다. 古墳이 통제력이 강한 시기의 권력자의 심볼이었으니 이를 연구한다는 것은 當時의

시대상·사회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이 고분연구나 壁畫研究 그 자체가 아니며 初學者로서 또한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단지 문헌에만 의존하여 쓰는 글이므로 古墳의 무수한 내용중 어느 일면만 다룰 수밖에 없다. 이에 수많은 고분의 例중 하나를 나름대로 선택하여 거기에서의 건축적인 要素에 관련된 몇가지만을 감히 이 글의 범위로 하는 것이다.

신라나 백제·가야에서도 많은 고분이 축조되었지만 삼국시대벽화고분(壁畫古墳)하면 고구려벽화고분이 연상될 정도로 고구려시대에는 많은 壁畫古墳이 築造되었다.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경부터 압록강의 만주쪽 지류인 혼강(渾江)유역의 桓仁지방에서<sup>2)</sup> 부족국가를 형성하고 있다가 서기 1세기경 압록강의 중류 북안 吉林省 輯安的 通溝로 옮겨 國家체제를 굳히고 王國을 출발하였다. 서기 427년(長壽王 15년)에는 더욱 南쪽으로 내려와 대동강 유역의 平壤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서기 668년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멸망하기까지

28왕조가 계승되었다.

그러므로 자연히 通溝와 평양을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었고 그동안 알려진 고분의 수는 약 50여기에 달하고, 이들의 분포는 통구부근에 약 15기, 평양부근에 28기, 안악(安岳, 載寧平野) 부근에 약 5기가 있다.<sup>3)</sup> 28왕조에 50여기의 고분이란 점을 미루어 보아 古墳의 주인공은 王 및 거기에 버금가는 支配계급의 사람이라 보여진다. 5세기부터 7세기까지의 고구려 벽화고분의 발생과 유행은 일찍부터 遼東지방 진출이나 대동강 하류 부근으로의 南下등을 통해 中國墓制와의 접촉에 의한 外來文化영향의 한 양상이라 하겠다.<sup>4)</sup> 그러나 중국에서는 4세기경까지 고분이 축조되다가 5~6세기에는 공백기를 두고 다시 唐代에 와서 유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4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에 키나이(畿內)<sup>5)</sup>에 당시의 豪族이나 首長의 무덤으로 보이는 장대하게 盛土한 墳墓(古墳)가 축조되었다.<sup>6)</sup>

고구려의 古墳은 대체로 3기로 구분된다. 초기(4세기~6세기초)와 중기(5세기초~6세기)는 佛敎思想의 영향이 컸고, 후기(6세기말~7세기전반)는 道敎의 영향이 컸던 시기이다. 古墳에 그려진 壁畫의 내용에는 그들의 思想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古墳壁畫 및 벽화 그리기는 풍습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영혼은 생존당시와 같이 生活한다는 영혼불멸의 世界觀을 반영한 것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른 思想의 변화를 벽화의 주제의 변화로 표현하고 있다. 고분의 위치를 보면 대다수가 산을 등지고 넓은 들을 앞에 낀 전망이 좋은 언덕에 자리잡고 있다. 이는 그들의 생업이 농업이었음을 잘 말해준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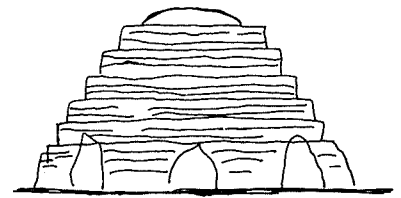
古墳의 基本形式은 橫穴式石室墳이며 外形은 石塚과 土塚으로 나뉘는데<sup>8)</sup> 통구지방에는 石塚이 많았고 평양지방에는 土塚(封土墳)이 많았다. 특히 평양지방의 고분은 주로 大同江

北岸에 있는 龍岡郡·大同郡·江西郡등지에 산재해 있어 이 지역이 비교적 기름진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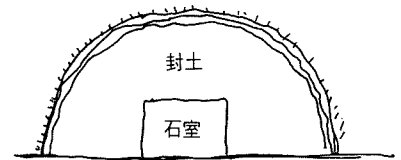
土塚과 壁畫裝飾法은 고구려가 일찍부터 樂浪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낙랑미술의 전통을 많이 받아들이고 또한 퍼뜨리는 中間役의 과정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이 가지는 의의는 고구려가 중국에서 아이디어와 內容은 배워왔지만 중국적인 틀에서 벗어나 나름대로의 형식을 만들어 중국고분공백기(5~6세기)에 東洋의 古墳을 이어갔다는 점에 있다.<sup>9)</sup> 특히 建築의인 측면에서 볼 때, 木造建物の 細部樣式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西域의 영향을 받은 抹角藻井, 또는 기둥의 수법 등의 要素를 통해서 당시의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의의가 크다. 이에 시기로는 中期에 해당되고 형식은 土塚인 雙楹塚을 통해 몇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키나이(畿內)를 중심으로 국가로서의 통일형태를 갖추게 된다. 久野建·辻惟雄·永井信一共著/ 秦弘燮역 : 原始時代「日本美術史」 悅話堂, 1978, pp.1~2.

- 7) 金基雄 : 壁畫古墳의 構造形式, 전개서 pp.19~20.
- 8) 石塚은 2~3단에서 5단정도로 큰 돌을 쌓아올린 피라미드형 積石塚이며 土塚(封土墳)은 入口와 연도(羨道)가 달린 橫穴式石室墳을 封土로 덮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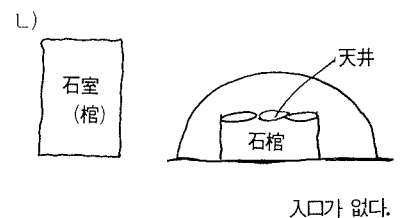
石塚



土塚

(그림 1)

횡혈식석실 과 수혈식석관(竪穴式石棺)의 구분은 入口에 있다.



(그림 2)

연도(羨道) : 墓室에 이르는 길

- 9) 金元龍 : 고구려의 벽화고분의 性格, 전개서 p. 85. 金元龍 : 고구려의 時代概觀 「韓國美術史」, 汎文社, 1968, p. 51.

□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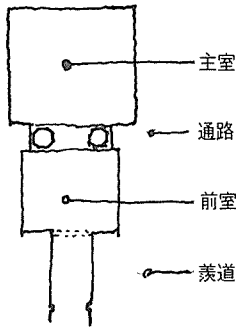
- 1) 金基雄 : 한국의 고분문화, 博物館특설강좌, 1982.
- 2) 金元龍 : 고구려의 벽화고분 「韓國壁畫古墳」, 一志社, 1980, p. 37.
- 3) 金基雄 : 壁畫古墳의 分布狀態 「韓國의 壁畫古墳」, 同和出版社, 1982, pp.16~19.
- 4) 金元龍 : 고구려 벽화고분의 性格, 전개서 p. 85.
- 5) 키나이(畿內)는 일본에서의 메이지(明治)이전 宮城부근의 直割地를 뜻하며, 본래 중국에서는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5백리 사방의 구역을 말한다.
- 6) 日本은 아스카(飛鳥)시대 以前을 原始時代라 구분하여, 죠오문(繩文)시대, 야요이(彌生)시대, 고훈(古墳)시대까지를 넣고 있다. 古墳時代(4세기 중엽에서 6세기까지)에 와서는 農耕生活에 의해 경제력도 상승하고 村落의 형성도 진보되어

## 2. 쌍영총 (Tomb of Twin Pillars)

대동강 유역의 용강군 지운면 眞池洞에 있는 雙楹塚은 한 쌍의 기둥(楹 : 기둥영)이 있어 그렇게命名된 것이다.

築造時期는 고구려의 全盛期에 해당하는 6세기 전반이라 추정되며 中間墳墓중 초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古式의 土塚이다.<sup>10)</sup>

墓室의 向은 南向이며 내부구조는 甬道식석실로 前室과 主室(玄室)로 구성되는 二室墳이고<sup>11)</sup>, 通路(通路·通道)에는 한 쌍의 八角石柱가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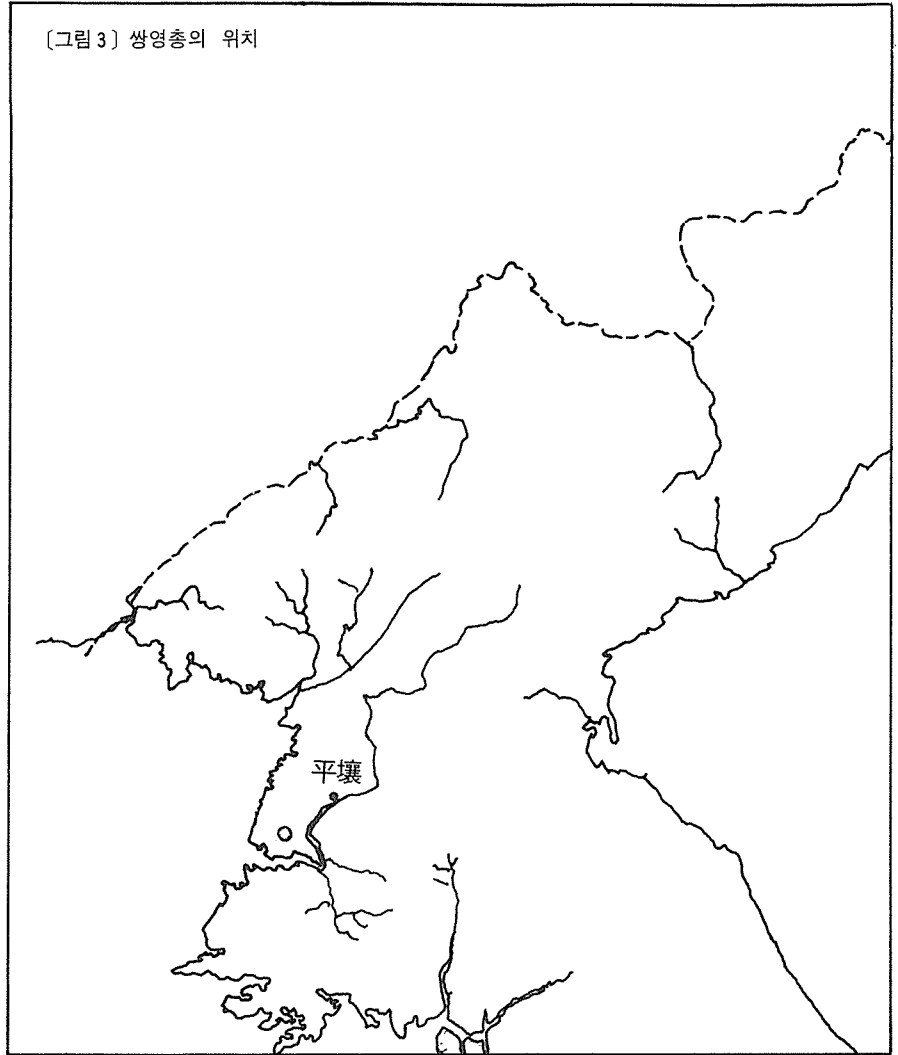
[그림 4]

묘실의 재료는 돌이며 돌을 쌓아 만든 벽면에 석회를 바르고, 그 표면에 墨線과 彩色을 使用하여 壁畫를 장식했다.<sup>12)</sup>

土塚(封土墳)의 墳丘에는 흙을 덮고 잔디를 입혔는데<sup>13)</sup> 이는 묘실의 보강 및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도

하지만 무덤이라는 표시이기도 하다. 벽화의 內容은 多様하나(그림7,8) 여기서는 論外로 하고 實測圖를 토대로 묘실의 규모 및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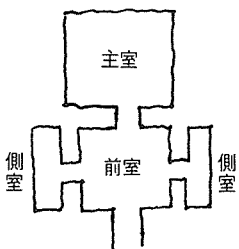
[그림 3] 쌍영총의 위치



□주

10) 金元龍 : 雙楹塚 「韓國美術史」 汎文社, 1968. p.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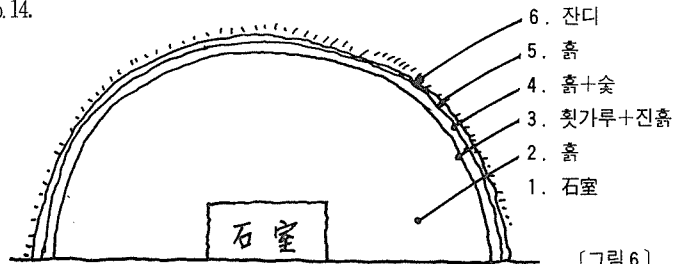
11) 초기의 土塚에서 연도나 전실 좌우에 側室을 두던 구조가 中期에 瓦선 側室이 거의 없어지고 前室과 主室의 폭이 거의 같아진다.



[그림 5]

12) 安輝潛 : 고구려의 회화 「韓國繪畫史」 一志社, 1980, p.14.

13) 흙을 덮는 方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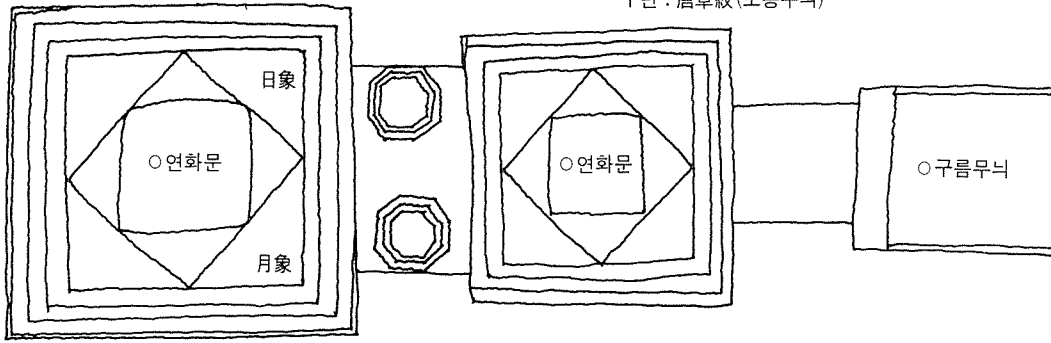
[그림 6]

金基雄 : 한국의 고분文化, 앞강좌, 1982.

14) 朝鮮總督府 : 「朝鮮古蹟圖譜第二冊」 平文社, 昭和十八年, pp.161~191. 그림 7, 8 : 雙楹塚石槨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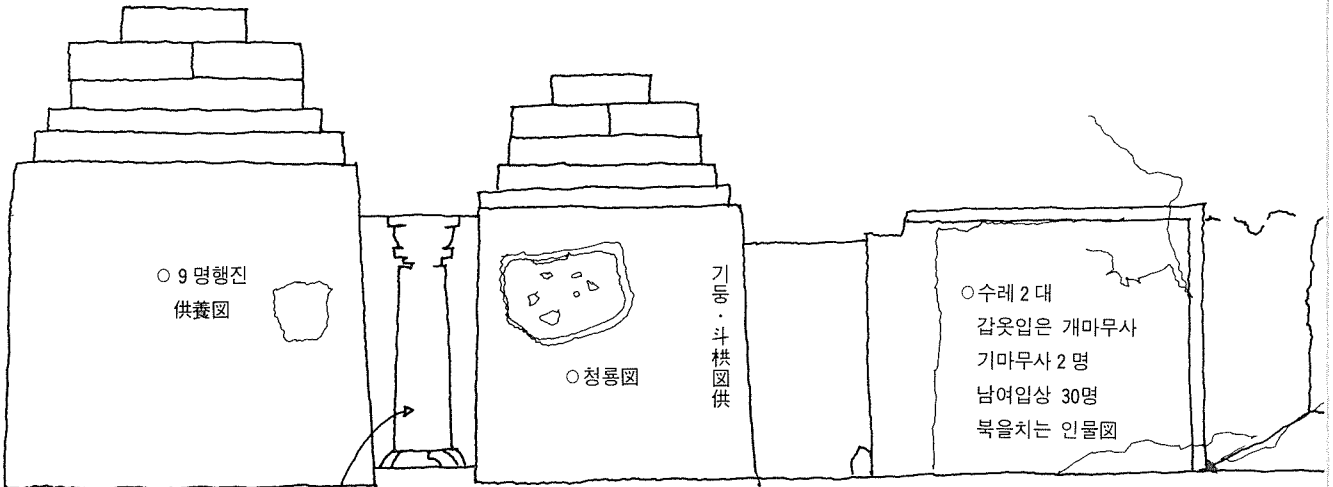
(朝鮮總督府 土木局營繕課實測) 참조  
그림내용 金基雄 : 쌍영총, 전게서 pp.160~175.

3단 : 당초문  
 2단 : 봉황 구름무늬  
 1단 : 唐草紋 (초롱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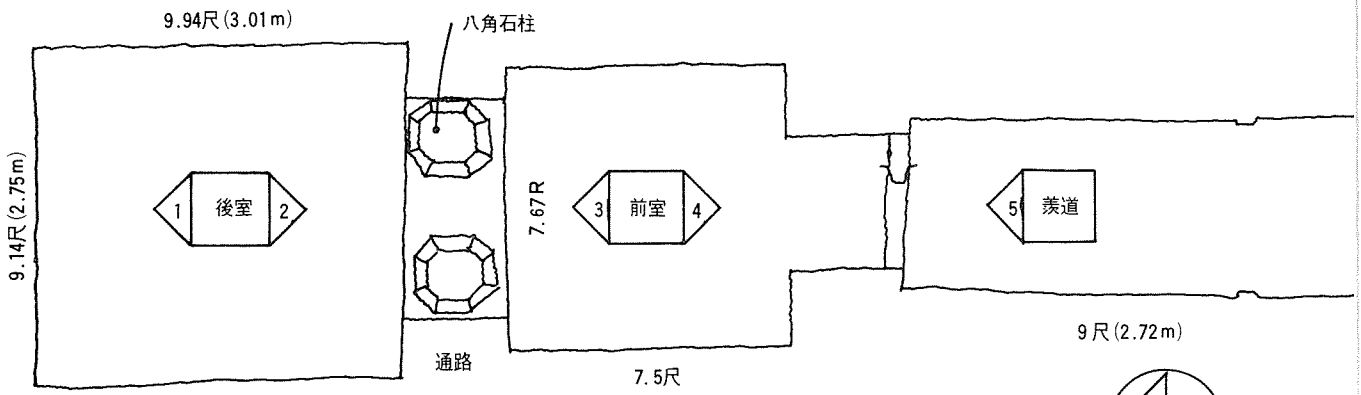
○연화문배합  
 사격자무늬 속에 동심원

天井 (抹角藻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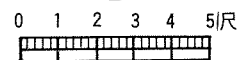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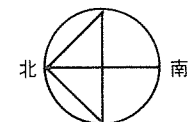
○붉은바탕에 황토蟠龍

縱斷 (東側壁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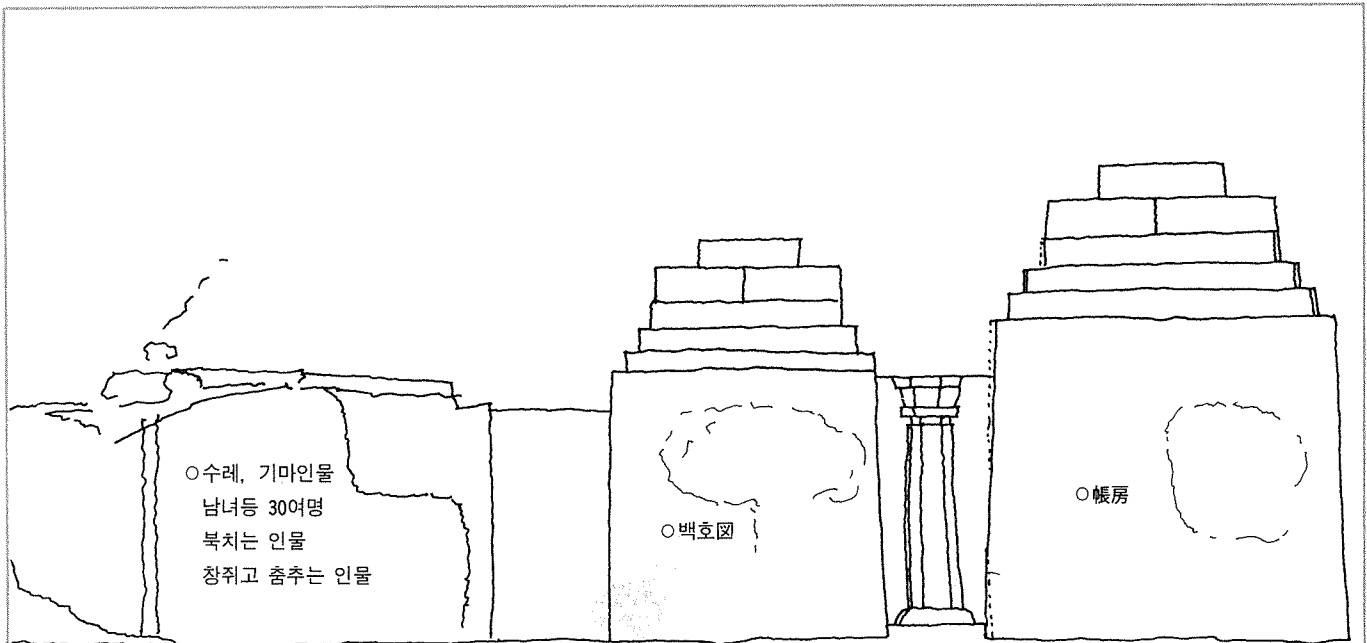


平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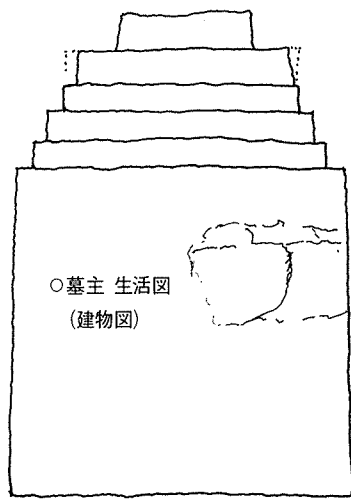
9尺 (2.7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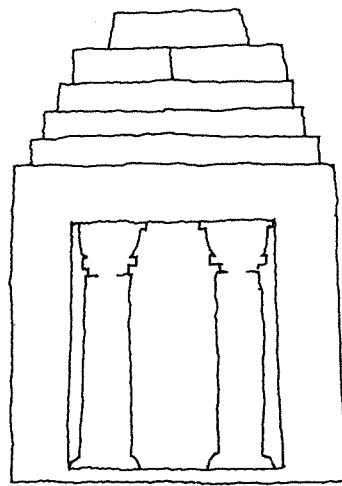
[그림 7] 쌍영총석실 실측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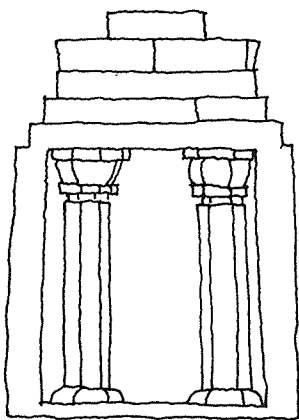
縱斷 (西側壁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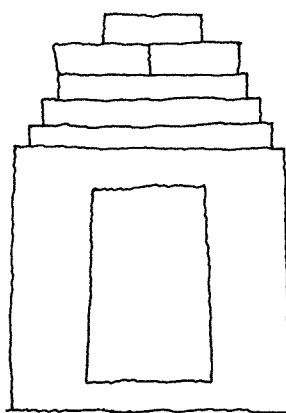
1. 後室北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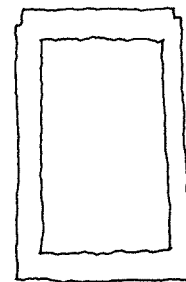
2. 後室에서 通路



3. 前室에서 通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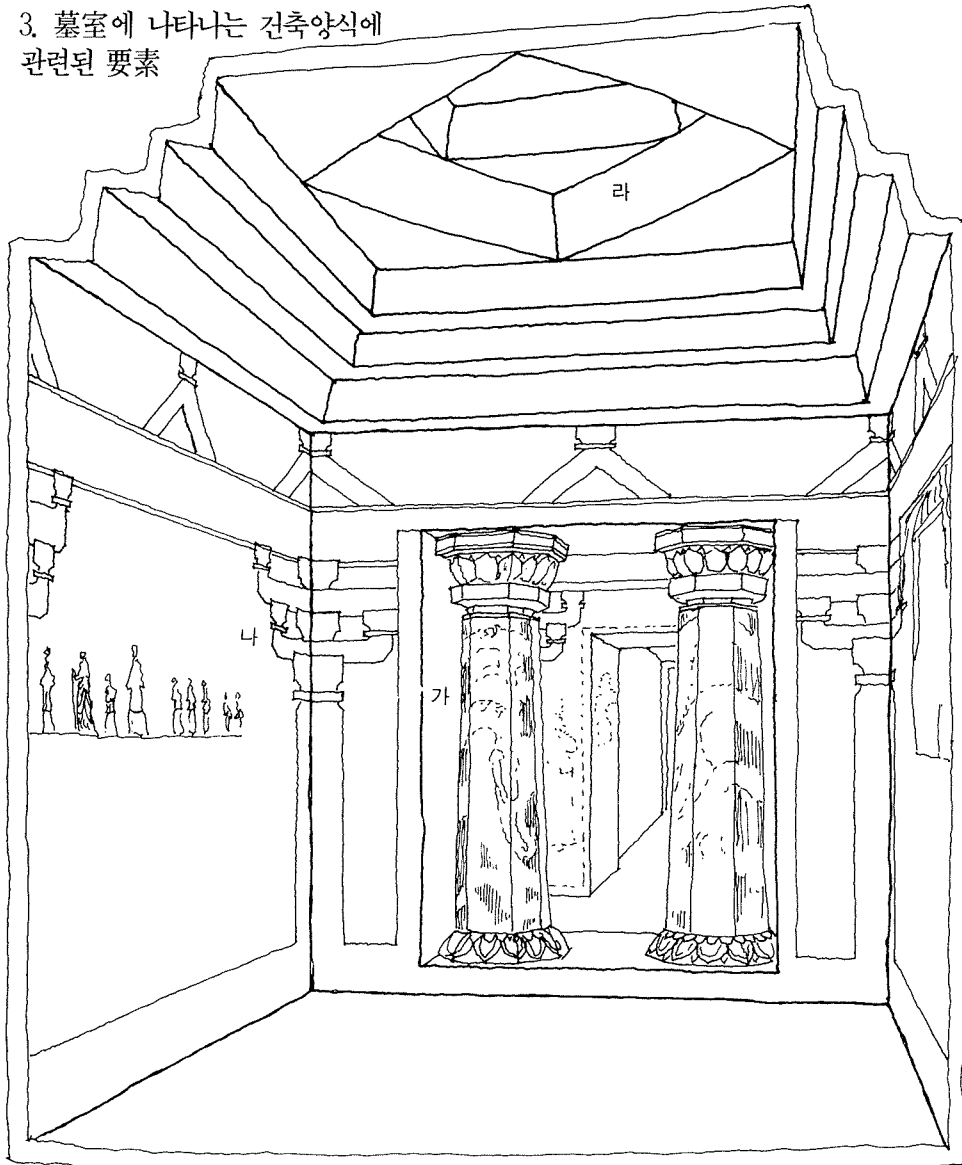
4. 前室에서 羨道



5. 羨道에서 前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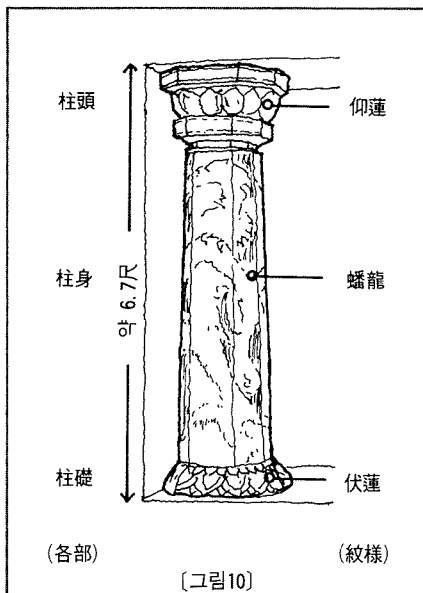
[그림 8] 쌍영총석실 실측도-2

3. 墓室에 나타나는 건축양식에 관련된 要素



가. 八角石柱 나. 기둥·栱包·人字栱圖(壁畫) 라. 말각조정 (그림 9) 雙楹塚後室見取圖<sup>16)</sup>

가. 八角石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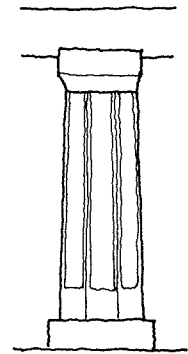


(그림 10)

前室에서 後室로 가는 通路(通路·甬道)에는 左右에 한 쌍의 8각石柱가 서 있어 구조적으로는 通路 上部의 荷重을 부담하고 있다. 넓은 通路에 기둥을 세우므로써 실제의 通過空間의 폭을 좁혀주어 後室(玄室)의 聖域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sup>16)</sup> 기둥의 높이는 6.7尺 가량이며 柱身은 밑이 조금 넓고 위가 좁은 형태<sup>17)</sup>로 蟠龍(반룡 : 굽이치는 용)이 그려져 있고 柱礎는 伏蓮을 그린 蓮花柱礎<sup>18)</sup>이며 柱頭의 두툼한 굽에는 仰蓮이 그려져 있다. 연꽃紋樣은 佛敎思想의 영향으로 비롯된 것이며 후대에 내려와 伏蓮위에 仰蓮을 올려놓아 佛像臺座에 使用된 例<sup>19)</sup>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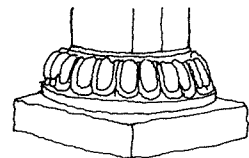
□주

- 15) 關野貞 : 圖版第十「朝鮮美術史」, 朝鮮美術史, 昭和七年 참조.)
- 17) 이러한 下大上小형의 八角柱는 同時代 中國·南北朝時期의 建築細部에서 볼 수 있으며(그림, 甘肅天水麥積山30號 八角柱; 劉敦楨, 전계서 p.110), 時代가 조금 앞선 例로는 後漢代 山東沂南縣古畫像石墓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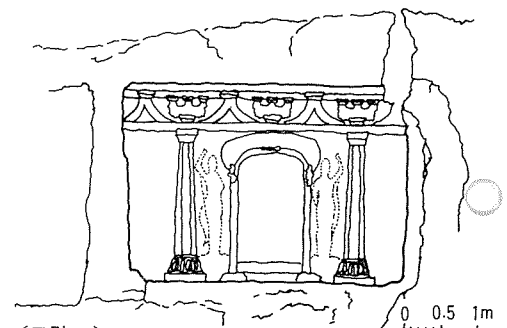
(그림 12)

- 18) 이러한 蓮花柱礎는 同時代 中國·南北朝건축의 石柱에 쓰였다.(그림 13, 河北定興義慈惠石柱; 劉敦楨, 전계서 p.110).



(그림 13)

- 19) 伏蓮위에 仰蓮의 蓮花座를 올려놓고 그 위에 佛像과 光背를 造像한 例로는 國立박물관의 甘山寺石造彌陀像(AD 719年)이 있다.
- 16) 비슷한 역할을 하는 例는 同時代 中國에서 石窟入口에 한 쌍의 八角石柱를 세운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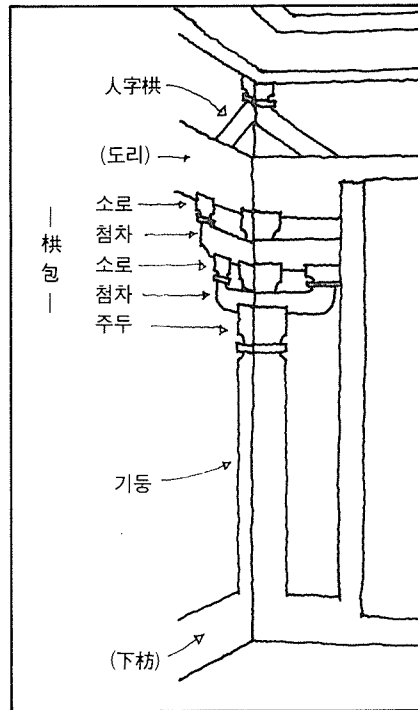


(그림 11)

나. 기둥·拱包·人字拱圖(壁畫)

前·後의 墓室壁 네 귀퉁이에는  
기둥과 拱包<sup>20)</sup>가 그려져 있고  
기둥뿌리엔 下枋을 나타내는 듯한  
橫帶가, 斗拱위엔 道里를 나타내는  
듯한 橫帶가 그려져 있다.  
기둥은 거의 수직에 가깝고  
기둥머리가 주두의 굽받침과 만나는  
部分에서는 모를 둥글게 하였다.  
柱頭와 소로는 같은 모양이고 첨차  
양단에는 끝을 약간 위로 올려  
굽받침을 가진 소로를 놓았고 첨차  
중앙에는 굽받침없이 소로를 놓아  
兩端의 小累보다 조금 크게 그려져  
있다.

壁上部에는 귀퉁이와 中央에  
人字拱<sup>21)</sup>을 그렸는데 直線的인 받  
위에 拱包의 소로와 같은 모양의 斗를  
올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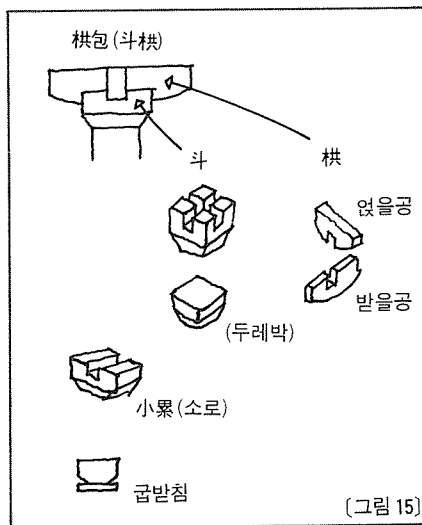
기둥은 거의 수직에 가깝고  
기둥머리가 주두의 굽받침과 만나는  
部分에서는 모를 둥글게 하였다.  
柱頭와 소로는 같은 모양이고 첨차  
양단에는 끝을 약간 위로 올려  
굽받침을 가진 소로를 놓았고 첨차  
중앙에는 굽받침없이 소로를 놓아  
兩端의 小累보다 조금 크게 그려져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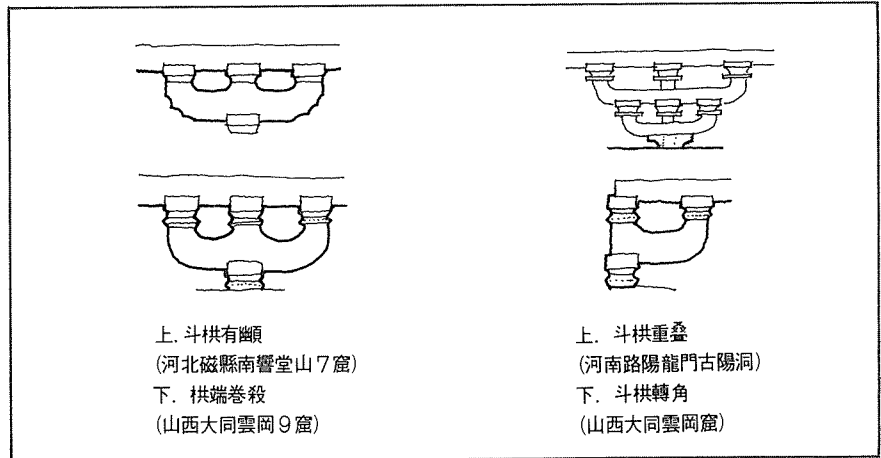
□ 주

20) 拱包는 中國·日本에서는 斗拱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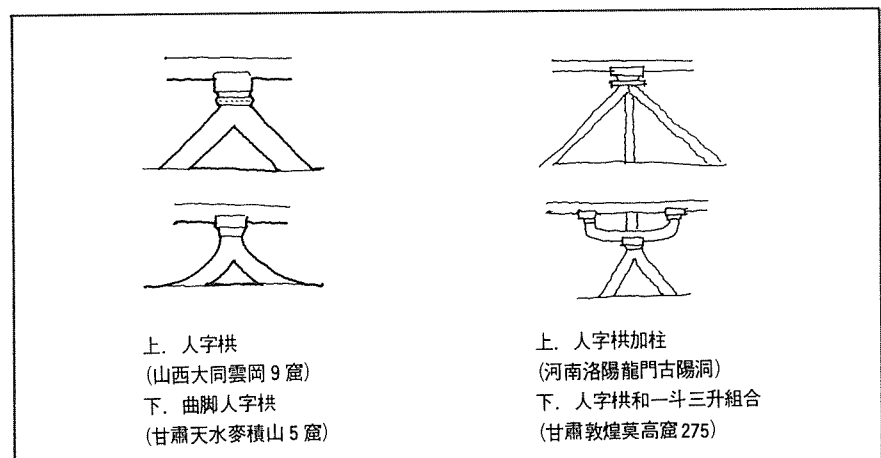
中國·南北朝時期建築細部の 斗拱  
몇가지를 비교 해보자. (그림 16,  
劉敦楨 : 전계서 p.108).



(그림 16)



21) 人字拱비교도, 劉敦楨 : 전계서  
p.108).



(그림 17)

다. 建物圖(壁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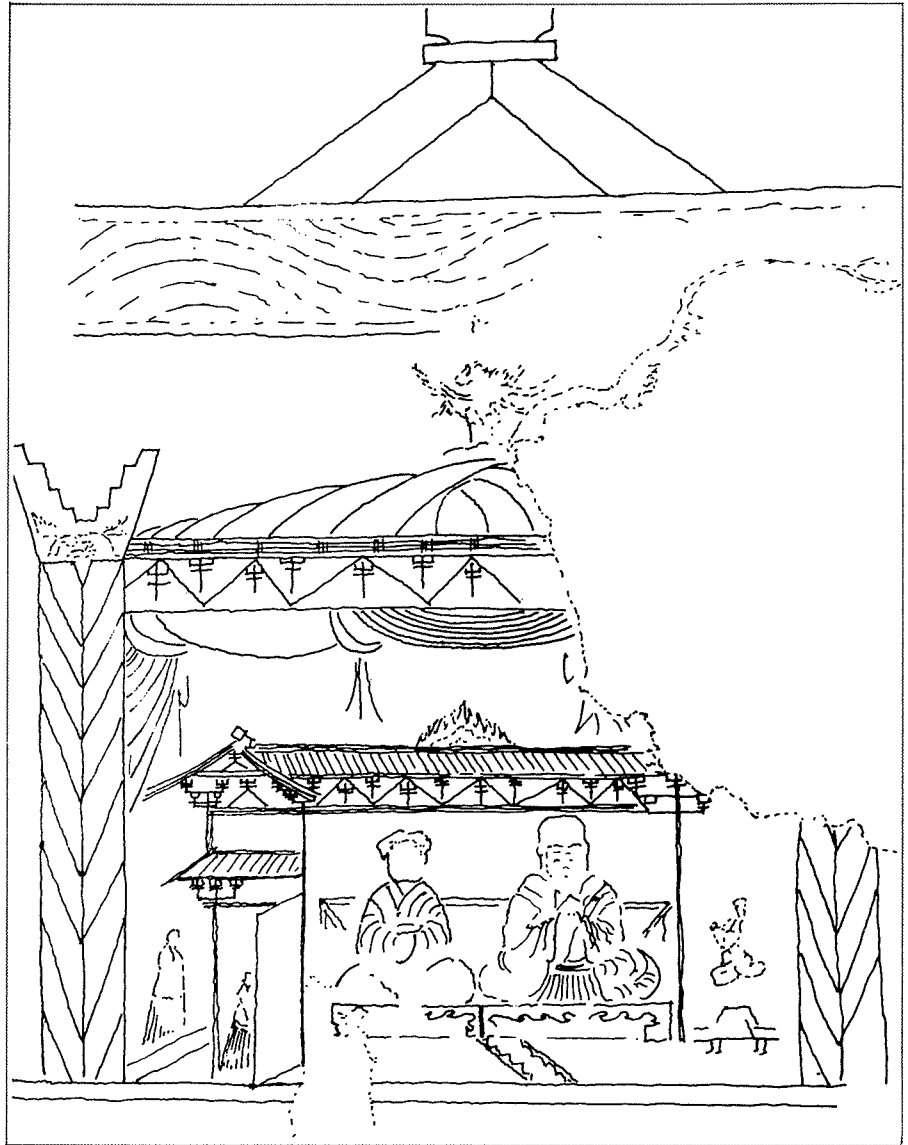
後室北壁의 壁畫는

‘墓主夫婦像’으로 墓主夫婦의 일상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상당히 사실주의적 作品이다.(그림 18)이 夫婦는 帳幕建物속에서 그려진 기와집안에 평상위에 나란히 正坐하고 있다.

建物은 맞배집으로 용마루 끝에는 望瓦 비슷한 장식이 달려 있고 기둥은 가는 線으로 표현되었다. 기둥머리는 斗拱표현이라 여겨지는 半장식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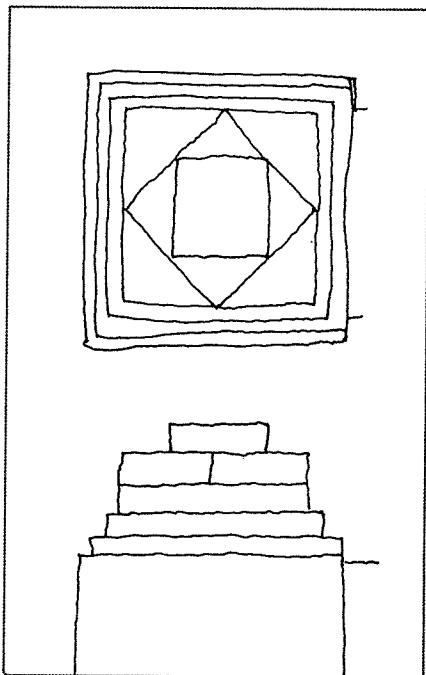
기둥위 柱間에는 人字拱으로 보이는 架構物이 있고 人字拱사이와 人字拱중간에 半모양의 龍字柱를 그렸다. 建物 左측면에는 기둥중간에 다시 작은 처마를 내고 그 밑에 門을 달았다. 이 그림으로 보아 건물의 출입구가 맞배집의 측면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림 18] 夫婦象<sup>22)</sup> ▶



□ 주

22) 金元龍 : 「壁畫」(韓國美術全集4), 同和出版公社, p. 55참조.



[그림 19] 쌍영총 前室藻井

라. 抹角藻井

石室의 天障構造는 고구려 壁畫古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각조장<sup>23)</sup>으로 되어있다.

抹角藻井이란 天障架設에 있어 四壁線과 平行하도록 한·두段의 받침돌을 안쪽으로 내밀어 天障面積을 줄인 다음 한 벽의 中間에서 이웃벽의 中間까지 斜交하는 삼각형 받침돌을 네 귀에 걸쳐놓고, 그것을 한 두번 반복한 다음 마지막 天障空間은 한장들을 덮는 方式의 天障을 말하는 것이다.<sup>24)</sup>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것은 황해도 安岳郡의 冬壽墓(安岳三號墳, 4세기 후반)이다.

이 天障架構法은 黑海沿岸·印度·中央아시아를

거쳐 3세기경에 이미 中國에 들어와 있었고<sup>25)</sup>, 고구려에까지 전파되어 마치 고구려인의 特許처럼 使用했었다. 同時代의 中國의 例로는 甘肅敦煌莫高窟 北魏石窟藻井에서 볼 수 있다.<sup>26)</sup>

□ 주

23) 抹角藻井은 關八天井이라고도 하며 高裕燮은 穹窿의 關八樣式(Lanternen Decke)이라 했다.

高裕燮 : 고구려의 건축

「韓國建築美術史草稿」

考古美術同人會, 1964, pp.16~20.

金秉模 : 抹角藻井의 性格에 對한 再檢討 「歷史學報」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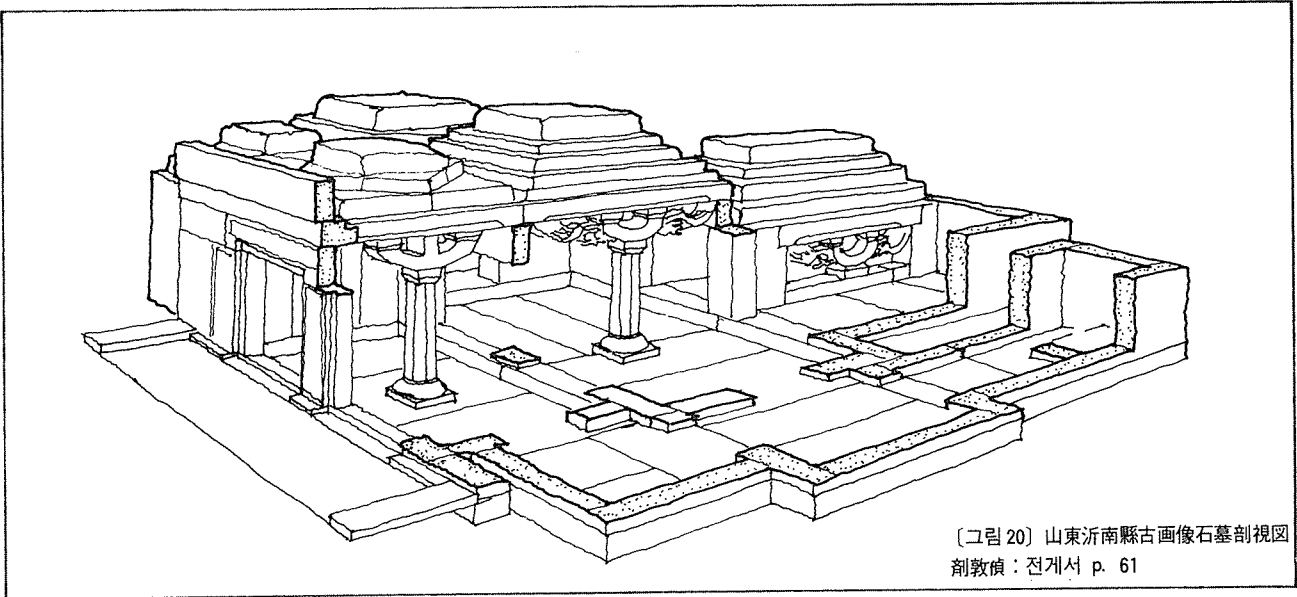
1978, pp.1~26.

24) 金元龍 : 삼국시대墓제

「韓國考古學概說」一志社, 1973, p.143.



25) 山東省沂南의 後漢代 石墓에서 볼 수 있다. 金元龍 : 전계서 p. 45.



[그림 20] 山東沂南縣古画像石墓剖視圖  
劉敦楨 : 전계서 p. 61

26) 劉敦楨 : 전계서 p. 112, 113, 圖73-2  
…斗八藻井見于敦煌彩畫中,  
推測當時可能有實物,  
天花除方格與長方格平藻外.

有用長方形平藻構成人字形頂棚  
的. 根据敦煌石窟,  
當時建築物的天花和藻井繪有五彩綜  
紛的彩畫.

#### 4. 맺는말

이상과 같이 쌍영총을 통해서 양식적 표현이라던가 造築의 지혜등을 몇가지 살펴 보았다.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연구되어야 할 點은 封土 墳丘의 흙을 甑는 方式과 봉토의 크기, 石室壁의 築造法, 그리고 通氣 및 배수에 관한 것들이다. 이것들이 자세히 밝혀지므로써 當代의 기술적인 지혜나 原論의인 해결책들이 설명될 것이며 그러한 背景이 樣式史에 의미를 더해 줄 것이다. 건축이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므로 墓主의 死後世界가 건축요소로 장식된 것은 生前에 건축물 속에서 살아가듯이 영혼불멸의 삶의 공간을 자연스레 표현한 것일 뿐이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건축요소를 그렸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벽화를 통해서 당시의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石室의 크기나 통로 등이 人間의 실제적인 스케일에 맞게 축조되었다는 점을 보아도 한낱 상징적·장식적 공간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하나 문제되는

것은 외래문화와의 교류이다.古今을 통해서 볼 때 外來文化를 받아들여서 즉각 토착화시키는 작업은 아직까지도 행해지고 있다. 어떻게 교류가 이루어졌건—눈으로 보고 왔던지, 외래의 기술자가 만들었던지 간에—최종표현 만큼은 우리의 自然環境과 우리 感覺에 맞게 되었으리라.

옛 것을 얹으로써 오늘의 위치를 바로 알고, 앞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미숙한 채로 손에 닿는 문헌을 참고하여 定理해 보았다. 拙稿에 대해 先學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丁卯年 어느 여름날 역삼동  
—隅에서 趙仁淑 삼가 씀)

#### □참고문헌

高裕燮(遺著) 韓國建築美術史草稿,  
考古美術同人會, 1964.  
金基雄 韓國의 壁畫古墳, 同和出版社.  
金正基 高句麗壁畫古墳에서 보는  
木造建物(金載元博士  
回甲紀念論叢)

金元龍 壁畫(韓國美術會集4)  
同和出版社, 1974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73  
韓國美術史, (株)汎文社, 1968  
韓國壁畫古墳, 一志社, 1980  
韓國古美術의 理解,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安輝濬 韓國繪畫史, 一志社, 1980  
尹張燮 韓國建築研究, 東明社, 1983  
정인국 韓國의 건축,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5  
秦弘燮 三國時代의 美術文化,  
同和出版社, 1976.  
韓國美術史(한국예술총서II),  
大韓民國藝術院, 1984.  
한국박물관회, 韓國의 傳統文化,  
國立中央博物館, 1987.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第二冊, 平文社  
昭和十八年.  
關野楨 朝鮮美術史, 朝鮮史學會,  
昭和7年.  
久野建 辻惟雄·永井信一/秦弘燮譯,  
日本美術史, 悅話堂 1978.  
마이클 설리만/金敬子·金基珠譯,  
中國美術史, 知識產業社, 1978.  
劉敦楨 中國古代建築史,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4.